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 濟州島民謠와 俗談을 中心으로 —

金　榮　敦

I

記錄文學과 달리 口碑文學에서는 作品과 作品 사이에 交流作用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 交流作用은 한 장르 안에서의 한편 한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장르와 장르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뤄진다.

모든 口碑文學은 共同作이요 個人作이면서도 共同作的 要素가 크기 때문에, 記錄化하지 않고 口碑하는 文學이기 때문에, 作品이 서로 交流됨은 오히려 당연하다.

民謠를 정리하다 보면 民謠 속에 俗談이 살짝 끼어든 例를 번번이 볼 수 있다. 日常會話 속에 쓰이던 洗鍊되고 기특한 俗談이 傳承者自身이 意識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民謠 篇篇에 섞이어 불리는가 하면, 日常 불리어지던 民謠 속의 句節이 俗談化될 수도 있다. 흥겨워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여 말해지는 談話 속의 중요한 대목이 한결같이 潛在意識 속에 기억되어있다가 그 斷片이 民謠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巫歌의 중요한 대목은 巫覡이 아닌 一般民衆들도 巫俗儀禮를 번번이 치르고 보는 사이에 不知不識間 익혀지게 되고 民謠를 歌唱할 때 그 歌詞로써 나타날 수 있다.

口碑文學 作品 相互間의 交流實態를 分析하는 일이란 所重한 作業이다. 口碑文學 各篇에 대한 傳承根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口碑文學 각 장르에 대한 立体的 分析이 이뤄질 것이다. 口碑文學을 享有하는 民衆들의 意識世界를 考究하는 데도 側面에서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本格的 考究는 별로 進展이 없다[1].

1) 다만 金東旭教授의 '판소리挿入歌謠研究'(「韓國歌謠의研究」. 乙酉文化社, 1961), 趙東一教授의 「叙事民謠研究」(啓明大學, 1970)에서의 叙事民謠 장르에 국한한 文体와 傳承研究, 任東權教授의 '民謠와說話와의交涉'(「人文學研究」, 第四·五合輯, 中央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77) 等은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民謠가 他口碑文學과 어떻게 交流되는가를 分析하는 일이란 너무 廣範한 작업이다. 여기서는 一次的으로 民謠와 俗談과의 交流實態만을 문제 삼기로 하고, 그 자료를 濟州島 民謠와 俗談에 국한했다. 濟州島 民謠와 俗談과는 어떤 形態로 交流되는가, 俗談과 交流되는 濟州島 民謠는 무엇을 題材로 한 것들인가, 濟州島 民謠 가운데도 주로 어떤 謠種의 노래가 俗談과 交流되는가— 이런 몇가지를 살핌으로써 民謠와 俗談 사이의 交流實態를 분석하고 그 原理를 밝히려 한다. (俗談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全國의 것은 " " 속에, 濟州의 것은 〈 〉 속에 묶어 구별하였다.)

Ⅱ

民謠는 다른 여러 口碑文學과 交流되는 가운데도 특히 俗談과의 넘나듦이 더욱 빈번하다. 그것은 民謠와 俗談과는 그 共通性이 짙다는 점에 根據하는 줄 안다. 民謠와 俗談과는 같은 口碑文學이라는 점 이외로도 상당한 近似値를 지닌다.

첫째 民謠와 俗談은 다같이 非專門的인 民衆들의 所産이라는 점이다. 巫歌는 巫覡이라는 特殊集團에 의해서 판소리는 廣大라는 特殊集團에 의해서 傳承되지만 民謠나 俗談은 그 傳承者가 반드시 限定돼 있지 않다. 民謠나 俗談의 傳承者가 限定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民謠는 노래이기 때문에 俗談에 비하여 傳承者의 幅이 좁혀진다. 民謠는 노래이기 때문에 歌唱에 能熟하거나 歌唱을 즐기는 분, 記憶力이 뛰어난 분들에 한하지만 俗談이란 口演을 전제하지 않는 日常會話 속에 그대로 섞어 쓰이므로 그 傳承者의 幅이 넓은 편이다. 또한 民謠나 俗談이나 꼭같이 民衆의 것이기는 하나, 貴族이 共有하느냐의 與否에는 차이가 있다. 民謠의 경우는 民衆들이 勞動을 하거나 生活하는 가운데 自然發生的으로 우러난 民衆들만의 노래여서 貴族의 參與란 있을 수 없다. 貴族들이란 俗談을 인용하며 이야기하기는 했어도 함부로 노래하는 일이란 品位를 위해 있을 수 없었다. 俗談 역시 逼迫받기는 했으나 그래도 庶民과 貴族이 共有했었다. 예수는 俗談의 活用者임과 동시에 俗談의 制作者였기도 했는가 하면[2], 아리스토텔레스는 俗談 蒐集의 率先者였으며 세익스피어는 수많은 作品 속에 俗談을 활용하였던 것이다[3].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漢籍 가운데 역시 俗談은 등장하고 있다. 民謠의 傳承者에 비해 俗談의 傳承者의 幅이 훨씬 넓

2) 舊約聖書에는 'The Book of Proverbs' (箴言)이 포함되었는가 하면, 新約聖書 속에도 俗談이 가끔 섞여 있다.

3) M. P. Tilley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Shakespeare의 作品 가운데 引用된 俗談數는 무려 2,883篇에 이르고 있다 ('A Dictionary of the proverbs in England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803–808, 1950. (shakespeare Index), 康壽彦; '韓英語의 俗談比較', 「濟州大學論文集」 第9輯, 人文社會科學篇, 1977. p.186參照.

은 편이긴 하지만 兩者 모두가 非專門的인 民衆들의 所産이라는 점에서는 共通된다.

둘째 民謠와 俗談은 그 形態가 짧다는 점에서 共通性을 지닌다. 民謠中에도 물론 敍事民謠인 경우는 그 形態가 긴 게 있을 수 있지만, 短形 抒情民謠가 그 대부분이다. 특히 濟州島民謠의 경우는 거의가 勞動謠이기 때문에 후렴을 사이에 두고 짤막짤막한 민요가 끝없이 이어져 나간다. 곧 후렴을 사이에 두고 2行的 意味를 지닌 4行의 整齊된 가사가 歌唱되어 나가는 게 典型이라 볼 수 있다.

俗談은 民衆共同의 慣用的 表現으로서 民間들의 機智·諷趣·教訓等 生活哲學이 담겨져 있다. 이 傳來的인 民間哲學은 的確·痛切을 그 生命으로 하는 바 簡潔性(Shortness)이 그 生命이라 할 것이다. 한 단어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짝 짜여진 洗鍊美가 그 生命인 것이다. 千萬마디의 긴 사설보다도 民間社會에 있어 相對方을 설복할 수 있는 寸鐵殺人的 機能을 지녔는가 하면, 民間人들의 處世와 修養의 지표가 되며 達觀할 줄 아는 人生觀과 社會觀을 심겨 준다. 隱喩가 교묘히 작용되기도 하는 俗談은 그 簡潔性이 生命이면서도 奇拔한 뜻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짜릿하게 자극시켜 주는 감칠맛이 있다. 그러니까 16世紀의 俗談 蒐集家 Game^{s} Howel도 俗談은 Shortness, Sense, Salt의 三要素가 따른다고 했다. 俗談은 平易明快하고 簡潔하기 때문에 民衆들이 이를 正確히 記憶하고 日常會話時 驅使하기에 안성마춤인가 하면 民謠 역시 短形이므로, 俗談 그대로를 民謠歌詞로 轉用하기에도 便利하다.

셋째 俗談이나 民謠는 다같이 民間의 生活相과 民間知慧의 總和다. 民間의 情意·哀歡·意慾·希願 等 生活實態 全般을 그대로 外顯시키는 게 民謠이며 民間들이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가는 사이, 살아가는 經驗의 蓄積에서 얻은 바 眞理와 事理의 判別力을 壓縮, 表現한 게 俗談[4]이므로 다같이 民間知慧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共通性을 지닌다, 물론 俗談의 경우는 民間叡智의 精髓로서 깔끔하게 가다듬어진 格言的 表現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於此彼 民間知慧의 總和라는 점에서는 共通된다.

넷째로는 俗談과 民謠가 다같이 日常生活에서 늘 볼 수 있고 이용하는 事物을 題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어디서나 民衆들은 具体的인 일에 늘 관심을 쏟게 마련이요, 可視的이요 日常的인 일이 口碑文學의 題材가 된다. 俗談의 素材가 具体的이요 可視的인 데 쏠리고 있음은 그 統計分析에서도 確認된다. 金善豊教授의 分析[5]에 따르면 俗談의 素材는 動物 (15.54%)을 우선하여 身体 (12.9%)·人稱 (11.3%)·食料品 (9.79%)에서만 約 50%를 차지하고 있다. 動物만 보더라도 개·소·호랑이·말·쥐·닭·고양이·돼지 順位로 나타나고 있음은

4) 李基文教授는 "속담은 전통적으로 진리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천만마디의 긴 설명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복하는 무기가 되며 事理에 철한 短句"라고 지적했다. (李基文: 「俗談辭典」, 民衆書館, 1977. 序文.)

5) 金善豊; '諺語 素材의 分析', 「韓國民俗學」 創刊號, 民俗學會, 1969, pp.5-6.

民衆의 日常生活과의 密接度와 正比例한다는 말이 된다. 民謠에 있어서도 이점은 마찬가지여서 形而上學的이요, 抽象的인 묘사는 거의 있을 수 없다. '맷돌·방아노래'속에 포괄되는 '시집살이 노래'를 보면,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기만 하는 며느리의 눈에 비춘 男便이나 媤家族의 비유가 나타난다. 媤父母나 媤妹 및 男便의 性向을 抽象的 語彙로써 묘사하기보다 日常 接觸하는 家畜·海魚 等 動植物로써 비유하고 있음을 본다.

媤父의 비유…구젱기 (소라)·숫돗 (수퇘지)·장독 (수탉)
媤母의 비유…암톡 (암탉)·자리·암돗 (암퇘지)·호박·점복 (전복)
男便의 비유…뭉게 (문어)·솔치 (쑤기미)·문둥이
媤妹의 비유…줄락 (재빠르고 자그만 海魚)·구살 (섬게)·배룩 (벼룩) 고생이 (용치놀래기)·중이 (쥐)

日常的 可視物로써 民謠를 부르고 俗談을 표현할 때 민간들은 더욱 쉽고 切實하게 그 내용에 접근하게 되고 實感하게 된다. 民謠나 俗談에 數詞나 數量이 흔히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明確性과 鮮明性을 간직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民謠와 俗談은 이처럼 具体的 事物을 즐겨 題材한다는 점에서 더욱 近似性을 지니게 되고, 交流를 促進하게 된다.

다섯째 民謠와 俗談은 地域的 特異性을 두드러지게 띤다. 우선 다른 口碑文學과 유다른 民謠의 特質을 필자는 세가지로 압축해 본다. 첫째 가장 民衆的이라는 점, 둘째 自足的 性格을 띠면서 機能的이라는 점과 아울러 셋째 地域的 特異性을 顯著히 띤다는 점이다. 民衆的이요 自足的, 機能的 特性을 지녔다는 것은 곧 地域的 特性을 지닌다는 말과 직결된다. 다른 口碑文學보다도 民謠는 貴族의 參與란 일체 있을 수 없이 가장 民衆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民衆意識 전반이 고스란히 뭉뚱그려져 드러나게 되며, 機能的이기 때문에 民謠는 民間生活과 밀착되는 것이다. 濟州島 民謠가 機能的이라는 具体的인 論據는 民謠의 本領은 勞動謠에 있는데, 濟州島 民謠의 대부분이 勞動謠라는 사실만으로도[6] 立證이 된다. 벅찬 勞動을 즐겁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農漁民들은 民謠를 부른다. 民謠를 부르게 되면 勞動에 리듬이 깃들게 되므로 勞動을 흥겹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면, 規則的인 動作은 勞動을 쉽게 해 준다. 또한 여럿이 共同으로 勞動하게 될 때면 노래를 부르는 게 行動統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强力하게 機能하기 때문에 濟州島 民謠의 경우는 民間生活과 密着되게 된다. 民間의 日常的 經濟活動, 文化活動, 社會活動 全般에 걸친 그들의 實態, 그들의 意慾, 그들의 情緖가 集約되어 民謠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장 民衆的이요, 機能的인 것이 民謠의 特異性格이요, 특히 濟州島 民謠의 特性이라 한다면 그 地域的 特異性도 强力해진다. 濟州島 民謠 한편 한편 속에는

6) 拙稿: '濟州島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第8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p. 43.

濟州島의 地理·歷史·民俗·産業·宗教·經濟 등과 濟州的 社會構造 및 思考樣態가 어련히 뭉뚱그려져 있기 마련이다.

俗談 역시 나라마다 地方마다 民間生活과 習俗이 다르듯이 民族과 地方에 따라 特異한 俗談들이 많다. 그 地方의 俗談은 그 地方의 民間生活 및 習俗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地方에 따라 價値基準이 다르고 生活慣習이 다르므로 오랜 옛날부터 傳해 내려오는 民間知慧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허지만 사람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血統과 地域을 벗어나 普遍性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民族 사이에 참으로 비슷한 俗談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다.[7] 그것은 俗談이 民謠와는 달리 오랜 經驗에 터전한 人間들의 普遍的인 事理를 集約 表現한다는 格言的 表現이란 性格 때문일 터인데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도 民謠든 俗談이든 地域的 特異性을 띠고 있다.

이상 지적한 바, 俗談과의 몇몇 類似性은 이 둘 사이의 交流를 더욱 促進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Ⅱ

그러면 濟州島 俗談과 民謠를 對象으로 俗談은 民謠 속에 어떤 形態로 混入되는지 그 交流되는 實態를 몇가지 形態로 나눠 볼까 한다.

첫째, 俗談이 그대로 民謠 한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

둘째, 한首, 또는 두首 이상의 俗談이 民謠의 一部分으로 끼어드는 경우.

셋째, 俗談이 지니고 있는 뜻이 民謠 속에 溶解되면서 原義는 같지만 扮裝된 表現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상의 세 경우를 想定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첫째의 例부터 들어 보기로 한다.

손콥에 베접　　나는 중 알곡
욤통에 쉬씨는 중　　몰르는구나
(맷돌·방아노래)

語釋 : 손톱에 *〈베접〉　　나는 줄 알고
염통에 쉬스는 줄　　모르는구나

7) 예를 들면 "百聞不如一見"/"Seeing is believing."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Nothing venture, nothing have." "돈만 있으면 鬼神도 부릴 수 있다."/"Money makes the mareto go"등 表現方法이 다를 뿐, 같은 뜻의 俗談이 얼마든지 보인다.

* 〈베접〉 ~손톱 가장자리가 곪아서 앓는 病.

俗談 한首가 고스란히 民謠化한 경우인데 다름이 있다면 〈쉬씨는 중 몰른다〉는 俗談 末尾가 〈쉬씨는 중 몰르는구나〉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이는 원래 제주도 고유의 것은 아니니, 耳談續纂에 '瓜芒思擺 心蛆岡覺'(言 人知目前之小患 不知隱微之大害)란 기록이 있는가 하면 "손톱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는 俗談이 全國에 흩어져 있다.[8] 世人들이 당장 부딪친 자잘구레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참 所重·遠大한 일들을 놓치며 살아감을 야유하는 警句. 英國 俗談 "One Can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및 "Spare at he spigot and let it run out at the bunghole."도 同類다.

애기 한 건　　결바시여
말 한 것인　　장제로고나
(맷돌·방아노래)

語釋 : 아기 많은 건　　비렁뱅이네
말 많은 것은　　長者로구나

〈애기 한 결바시, 말 한 장제〉(아기 많은 비렁뱅이, 말 많은 長者)라는 俗談이 文章을 이루면서 民謠化했다. (〈결바시〉는 〈게와시〉라고도 한다.) 제주도는 古來로 이름난 牧畜地帶. 예전의 富豪라면 牛馬保有數의 多寡에 따랐었으며 百頭 이상 가진 이도 흔했었기 이런 俗談도 생겼음직하다. 記錄에 따르면 納馬에 功이 컸으므로 官職이 副摠管에 이르렀었다는 金萬鎰은 말이 數千匹에 이르렀었다는데 新官이 入去할 때마다 遞任進上馬를 그가 바치기까지 했었다 한다.[9] "아기 많은 건 비렁뱅이"라는 표현과 有關한 것으로는 "가난한 집에 자식 많다"는 俗談이 全國에 흩어져 있다.

이번에는 異例的으로 俗談 네首가 엉켜 하나의 民謠를 낳는 경우이다.

○ 주들 일 웃건 양첩 하라　　(겨정할 일 없거든 兩妾 하라)
○ 주들일 웃건 쌍놈의 벗을 사귀라 (겨정할 일 없거든 쌍놈의 벗을 사귀라)
○ 미운 놈 보컨 똘 하영 나라　　(미운 놈 보려거든 딸 많이 낳아라)
○ 미운 놈 보컨 질 나는 밧 버실라 (미운 놈 보려거든 길 나는 밭 갈아먹어라)

8) 李基文;「俗談辭典」, 民衆書館, 1977, p.311.
9) 金萬鎰之馬多 至數千匹不可紀數 每新官之入去也 首徵遞任進上馬 於萬鎰三年限養置才 而臨遞時進獻… 納馬有功 官至副摠管.(李健著「濟州風土記」)

이 비슷비슷한 俗談은 한덩이를 이루고는 한편의 민요를 마련한다.

조들 일 웃건　　양첩을 ᄒᆞ곡
쌍놈의 벗을　　사귀라 ᄒᆞᆫ다
미운놈 보컨　　ᄯᅳᆯ 하영 나곡
질 나는 밧을　　버실라 ᄒᆞᆫ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걱정할 일 없거든　　양첩을 하고
상놈의 벗을　　사귀라 한다
미운 놈 보려거든　　딸 많이 낳고
길 나는 밭을　　갈아먹으라 한다

다음의 民謠 역시 그 形成은 같은 部類.

다심아방을　　아방이영 ᄒᆞ멍
청국장을　　장이영 ᄒᆞ멍
보리떡을　　떡이영 ᄒᆞ랴
(맷돌·방아노래)

語釋 : 의붓아비를　　아비라 하며
靑麴醬을　　장이라 하며
보리떡을　　떡이라 하랴

〈보리떡을 떡이영 ᄒᆞ멍, 다심아방을 아방이영 ᄒᆞ랴〉는 속담과 〈청국장을 장이영 ᄒᆞ멍, 보리떡을 떡이영 ᄒᆞ랴〉는 속담이 제주도에 있는가 하면, "의붓아비를 아비라 하랴" 및 "청국장이 장이냐, 거적문이 문이냐"는 속담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보리떡을 떡이영 ᄒᆞ멍, 다심아방을 아방이영 ᄒᆞ랴〉는 속담에 〈청국장을 장이영 ᄒᆞ랴〉라는 귀절이 接合되어 원래는 〈보리떡을 떡이영 ᄒᆞ멍, 청국장을 장이영 ᄒᆞ멍, 다심아방을 아방이영 ᄒᆞ랴〉는 표현이 그 原形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지금 傳承되는 俗談은 退化된 것이겠고 위의 民謠는 첫째줄과 셋째줄이 서로 뒤바뀐 셈이 되는 터이다.

둘째 俗談이 民謠 속에 그 一部分으로 끼어드는 경우인데 그 예는 흔하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실 가는 데 바늘 간다"는 속담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바농 간

듸 셀 아니가랴〉(바늘 간 데 실 아니 가랴)로 표현된다. "龍 가는 데 구름 간다" "녹수 갈 제 원앙 간다" "범 가는 데 바람 간다" "鳳 가는 데 凰이 간다"는 속담들도 同類의 것들이다. 또한 "뎡갈나무 회초리 나고 바늘 간 데 실 따라간다"는 속담도 있다. '바늘'을 '어머니'에 '실'을 '子息'에 비유하면서 思母의 至情을 노래한 다음의 秀逸한 民謠는 이 俗談과 交合함으로써 태어났다.

어멍 펜에　　나 아니 가멍
바농 간 듸　　셀 아니 가랴
(맷돌·방아노래)

語釋: 어머니 편에　　내 아니 가며
바늘 간 데　　실 아니 가랴

나는 이 民謠를 類例 드문 好詞라고 賞嘆한다.[10]

〈놈의 집광 관원살인 궤단 밥도 두영 간다〉(남의 집과 官員살이는 퓽던 밥도 두어서 간다)는 俗談이 있다. 남의 집 살이를 하다가, 떠났어도 괜찮을 계제에 이른다든가, 官吏生活하다가 轉出 혹은 退任할 때, 미련없이 훌렁 떠날 수밖에 없는 게 常情이라는 것.

관원 살이　　놈의 집 살이
궤단 밥도　　두어근 간다.
먼 정 밖의　　신 벗인 나여
신영 가민　　매기로고나
(맷돌·방아노래)

語釋: 官員 살이　　남의 집 살이
퓽던 밥도　　두어서 간다
먼 〈정〉 밖에　　신 벗은 나네
신어 가면　　그만이로구나

맷돌·방아작업하며 불리는 '시집살이노래'. 〈정〉이란 〈정낭〉·〈정술낭〉이라고도 하는데,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大門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를 뜻한다. 在來의 濟州 家屋에는 大門을 마련하지 않고 大門 대신 이 〈정〉을 걸쳐 놓는 경우가 흔했었으므

10) 拙著; 「濟州島民謠의 特色」. 濟州大學, 1964, pp.52-53.

로, 이 '大門無'는 '乞人無'·盜賊無'와 더불어 濟州 特異의 '三無'라 자랑삼아 말해진다. 이 民謠의 後二行은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자신의 傲氣를 外顯시킨 것. 다음 역시 '시집살이노래'인데 〈퀘단 밥도 두엉 간다〉는 俗談의 部分만이 적절하게 끼어들었다.

씨누이야　　씨가령 말라
너도 가민　　씨녕일러라
나도 가민　　친정에 간다
퀘단 밥도　　두어뒹 간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시누이야　　시거드름 말라
너도 가면　　시집일러라
나도가면　　친정에 간다
끓던 밥도　　두어둬 간다

시집살이의 등살에 시달리는 신세이지만 그중에도 가장 아니꼬운 시누이의 거드름에 一針하는 내용이다.

"귀머거리로 三年이요, 벙어리 三年이라"는 俗談이 全國에 遍在한다. 예전 親庭의 어머니는 出嫁하려는 딸에게 시집살이의 要諦는 우선 참음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들어도 못 들은 체 귀머거리로 三年 살고,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체 벙어리로 三年 살고 보아도 못 본 체 장님으로 三年 살면, 萬難의 시집살이도 가히 敢耐할 수 있다고 굳이 당부한다. 淳朴하기만 한 女人은 출가한 후 이를 고스란히 務行한다. 나무랄데 없이 着實한 며느리이긴 하지만 영 말이 없으니 귀머거리요, 장님으로 착각한다. 家族會議를 연 媤家에서는 쫓기기로 合議한다. 쫓겨난 女人은 보따리를 들고 호젓한 산길을 걷는다 .마침 밭구석에 있던 꿩 한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이를 쳐다보던 女人은 저 꿩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날개·앞다리·가슴·간 등을 각각 媤家들에게 드리고 싶어한다고 이쁜 목소리로 노래한다. 며느리가 떠나감을 痛憤하며 뒤쫓던 媤母가 이 千萬以外의 노랫소리에 啞然해진다. 며느리를 붙들고 되돌려 歸家해서는 和平한 살림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全國에 흩어졌을 뿐더러 日本에도 꼭 같은 傳承이 있다. 說話·俗談·民謠의 交涉을 볼 수 있는 例.

말 몰랑 삼년　　귀막앙 삼년
눈 어두왕 삼년　　연삼년 사난
가랜 오랜　　말이 웃어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 말 몰라 삼년　　귀먹어 삼년
눈 어둬 삼년　　연삼년 사니
가라 오라는　　말이 없더라

말 몰랑도　　삼년이라라
귀 막앙도　　삼년이라라
눈 어둠도　　삼년이라라
연삼년이　　어느제민 가코
(멧돌 · 방아노래)

語釋 : 말 몰라서도　　삼년이더라
귀 먹어서도　　삼년이더라
눈 어둬서도　　삼년이더라
연삼년이　　언제면 갈꼬

셋째는 俗談이 지니는 뜻이 民謠 속에 溶解되면서 原義는 같지만 變貌된 表現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예들어 "死後 술 석잔 말고 생전에 한잔 술이 달다"는 俗談이 있는데 "죽어 석잔술이 살아 한잔 술만 못하다"라고 表現되기도 한다.[11] 이 俗談이 지니는 뜻은 다음 民謠를 낳기도 한다.

늙은 부모　　모신 이멀아
산 때 공경　　ᄒᆞ서니서라
머리 메장　　발 메장ᄒᆞ영
혼백상지　　양 요의 놓앙
삼헌관에　　싀집ᄉᆞ 세왕
절 삼베에　　술 석잔 드리난
어느 잔이　　베골람서니
(멧돌 · 방아노래)

語釋 : 늙은 부모　　모신 이들아
산 때 공경　　하자꾸나

11) 김도환교수는 "한국 속담의 심리적 분석 연구" (「師大論文集」 第2輯, 人文科學篇, 釜山大學校師範大學, 1975, p.270)에서 韓國 俗談 가운데는 來世主義的 思想의 俗談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濟州島 俗談에서 역시 來世思想을 드러낸 것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

머리 메장　　발 메장하여
혼백상자　　양 옆에 놓아
절 삼배에　　술 석잔 드리니
어느 잔이　　곪아 가더냐

寫實的·直說的으로 노래하면서 死後의 極盡한 精誠과 煩禮보다는 父母를 恭敬한다면 살아계신 때 잘 받들어야 한다는 노래다. '三獻官'·'세執事'·'절三拜'·'술석잔'等 三字의 잇따른 反復으로 해서 歌意는 더욱 深化되어 나가며 父母를 모신 분들에게 때늦은 改悟를 敎訓하는 데 漸層的 强勢를 드러낸다.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在'라는 表現이 歌詞 思親歌에도 보인다.

"高麗 公事 三日"·"朝鮮 公事 三日"·"중의 公事 三日"이란 俗談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新政之初와는 달리 참을성 없고 변덕이 甚한 사람들의 虛点을 찌른 표현이다. 於于野談이라든가 世宗實錄 等에는 이에 따른 逸話마저 소개되어 있는 폐 알려진 俗談들이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 壓迫과 收奪이 極甚했었으므로 이 俗談을 收入해다가는 "員의 公事 三日"로 變形시켰다. 주민들이 統治責任者들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는 데 연유하는 것으로 안다. 虐政을 심히 했었으므로 예전 濟州에 오는 官吏란 滿30個月이면 轉出을 시켰었다는데[12] 이는 아마 오래 勤務하게 될 때 弊端이 크리라고 憂慮해서였을 것이다.

구관이옝　　헤깜도 말라
신관이옝　　일콜도 말라
산짓물을　　사흘 먹으난
원의 공소　　혼 공소라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舊官이라고　　비난도 말라
新官이라고　　찬양도 말라
山地물을　　사흘 먹으니
員의 公事　　한 공사더라

"員의 公事 三日"의 '三日'을 '山地물을 사흘 먹으니'로 표현한 것도 흥미 있거니와 前二行에는 '舊官이 名官'이란 俗談이 알맞게 接木되면서 意譯化되었다.

온갖 事象은 변하여도 不變의 本体가 있다는, 本心은 改變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물은 흘러

12) 請依濟州江界等　官例滿三〇個月遞差從之. (世宗實錄 卷三〇, 七年十二月條)

도 여흘은 여흘대로 싯나〉 (물은 흘러도 여흘은 여흘대로 있다)는 俗談이 있다. 여기 〈여흘〉이란 〈여울〉·〈여〉라고도 하는데, 원래 바닷가 물속에 잠겨 있는 暗礁, 혹은 바다 가운데 섬처럼 솟은 커다란 岩石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河川 가운데 박힌 岩石을 뜻한다. 곧 '江流石不轉'이다.

시냇물이사　　흘르쥬마는
여흘이사　　어디레 흘르리
(맷돌·방아노래)

語釋: 시냇물이야　　흐르지마는
여흘이야　　어디로 흐르리

이상 濟州島 民謠와 俗談이 서로 交流되는 形態를 例를 들면서 살펴 보았다. 곧 俗談 그대로가 民謠로 불리어지는 경우, 俗談이 民謠의 一部로 끼어드는 경우, 俗談의 뜻이 民謠 속에 溶解되어 그 表現만은 改變되어 나타나는 경우 등, 세 形態로 定立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Ⅳ

이번에는 濟州島 民謠와 俗談 가운데서 서로 넘나드는 頻度가 짙은 것은 무엇을 題材한 것들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交流가 흔히 이루어지는 民謠와 俗談의 題材를 分析하는 이 작업은 도민들의 日常的 關心의 傾向을 살피는 데 한갖 規準이 될 것이며, 民謠와 俗談과의 交接地点을 立体的으로 綜合함으로써 好詞가 살리는 傳承의 實態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資料는 拙著「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와 李基文教授의「俗談辭典」(民衆書館, 1977) 및 진성기씨의「제주도 속담」(프린트版, 1959)과 필자가 수집한 속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어떤 形態로든 俗談이 民謠 속에 끼어든 경우를 拔萃해내다 보니 俗談의 規準과 限界가 모호함이 切感되어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다.

前記「濟州島民謠研究(上)」에서 俗談과 交流되는 民謠를 抽出해 보니 120篇에 이르렀다. 이 120篇의 民謠를 그 題材의 種類에 따라 정리해 보니 自然 (29篇)·人事 (28篇)·家庭 (24篇)·시집살이 (12篇)·生業 (8篇)·衣食 (10篇)·兩班·官吏 (9篇) 이었다. 이를 具体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自 然 (29篇)

바다 (6) · 花鳥 (6) · 岩石 (4) · 山岳 (4) · 泉井 (3) · 나무 (3) · 바람 (2) · 비 (1)

Ⅱ. 人 事 (28篇)

죽음 (11) · 嘆老 (4) · 貧富 (4) · 非情 (2) · 愛憎 (1) · 痴情 (1) · 離別 (1) · 苦生 (1) · 自虐 (1) · 發散 (1) · 人体 (1)

Ⅲ. 家 庭 (24篇)

妾 (9) · 子息 (4) · 思父母 (2) · 育兒 (2) · 시앗 (2) · 思母 (1) · 繼父 (1) · 繼母 (1) · 妻 (1) · 同婿 (1)

Ⅳ. 시집살이 (12篇)

시집살이 (7) · 媤父母 (2) · 媤母 (2) · 媤妹 (1)

Ⅴ. 生 業 (8篇)

맷돌·방아질 (3) · 海女作業 (2) · 漁業 (2) · 양태작업 (1)

Ⅵ. 衣 食 (10篇)

飮食 (8) · 服飾 (2)

Ⅶ. 兩班·官吏 (9篇)

兩班 (6) · 官吏 (3)

이 項目들을 훑어볼 때, 그 題材는 民間의 日常生活과 直結된 事象들임을 곧 알 수 있다. 生活周邊을 둘러친 可視的인 大自然이 民謠나 俗談의 主要題材로 등장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며, 죽음·嘆老·貧富 等 人事가 나타나는 것도 民間들의 日常關心事라는 점에서 곧 이해할 수 있다. 家族等 家庭과 시집살이에 관계된 俗談이 日常 會話 속에 나타나고 民謠 속에 끼어들어 불리우는 것도 民間들로서는 切實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生業과 衣食은 生活의 第一義的 需要이기에 의당 民謠·俗談의 交流對象이 될 수 있는 일이며, 지난날 虐政 아래 시달려 왔던 도민인지라 兩班·官吏에 관심이 유별나게 쏠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各題材別로 그 交流實態의 例를 살펴 보려 한다.

Ⅰ. 自 然

四面環海의 섬이기 때문에 역시 바다를 題材한 게 드러난다.

물도 싸민　　여울이 나곡
낭도 싸민　　ᄆᆞ를이 난다
에구에구　　나 가는 섬은
물도 낭도　　웃어라 한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물도 써면　　*〈여울〉이 나고
나무도 켜면　　가루가 난다
에구에구　　내 가는 섬은
물도 나무도　　없더라 한다

* 〈여홀〉·〈여〉라고도 하는데, 바닷가 물속에 잠겨 있는 暗礁, 혹은 바다 가운데 섬처럼 솟은 커다란 岩石.

〈물도 싸민 여울이 나곡, 낭도 싸민 ᄆᆞ를이 난다〉 (물도 싸면 〈여울〉이 나고. 나무도 켜면 가루가 난다)는 그대로 속담이다. 萬有는 變轉하니 世事는 세월이 흐르면, 모두가 變通이 있기 마련이지만 기구한 自身의 歷程에는 變幻이 마련될 轉機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가는 섬〉이란 자신의 歷程을 具象的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 〈섬〉이란 〈여울〉을 뜻한다.

〈웨낭기란 웨돔박 올 듯〉(외나무라 외동백 열 듯)이란 속담이 있고, 〈비 온 날에 웨상제 울 듯〉 (비 온 날에 외상제 울 듯)이란 속담이 있다. 모두가 외로움을 드러내는 適切한 비유로서 獨子의 孤單을 뜻하면서 民謠 속에 알맞게 끼어든다. 제주도에서는 冬栢나무가 庭園과 거리에 폐자라는 편이다.

나거든에　　상성제 나라
나거든에　　ᄉᆞ성제 나라
웨낭기란　　웨돔박 올 듯
웨로 난 일　　서뤄니ᄒᆞᆫ다
비온 날에　　웨상제 울 듯
웨로 난 일　　서뤄니ᄒᆞᆫ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나거들랑　　삼형제ᄅᆞᆯ나라
나거들랑　　사형제 나라
외나무라　　외동백 열 듯

외로이 난 일 서러워한다
비온 날에 외상제 울 듯
외로이 난 일 서러워한다

〈꽃광 나빈 혼골로 간다〉(꽃과 나비는 한골로 간다)는 속담은 다음의 민요를 낳는다.

날랑 죽건 꼿이나 뒈라
벗이랑 죽건 나비나 뒈라
꼿광 나빈 혼골로 간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날랑 죽거든 꽃이나 돼라
벗이랑 죽거든 나비나 돼라
꽃과 나빈 한골로 간다

不遇한 逆境에 처해 있는 自身을 〈산짓물에도 궁근광 츠지〉라는 俗談으로 표현한다. 〈산짓물〉이란 漢拏山에서 제주도의 관문인 山地港으로 이어지는 山地川(山底川) 下流에 위치한 島內 第一의 飮料泉井이면서 住民들의 빨랫터로서도 퍽 알려졌다. 등에 진 짐을 잠깐 내려 쉬거나, 빨랫터가 되는 넓직한 돌로 이뤄진 台를 〈광〉이라 하는데, 〈궁근광〉이란 '安定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광〉'을 뜻한다. 역시 石多인 제주도다운 俗談.[13]

물랑 지커경 산짓물 지고
낭이랑 지커경 돔박낭 지라
ᄌᆞ드는 사름은 산짓물 가도
궁근광에 앚아사 한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물일랑 지려거든 산짓물 지고
나물랑 지려거든 동백나무 져라
걱정 많은 山地물 가도
〈궁근광〉에 앉아야 한다

여기 〈물랑 지커경 산짓물 지고, 낭이랑 지커경 돔박낭 지라〉는 표현 역시 俗談이라 볼 수

13) 濟州島民謠에서도 돌을 題材로 한 秀逸한 民謠는 퍽 나타난다. (拙稿: '濟州島民謠와 石多'「韓國民俗學」, 通卷 第3號, 民俗學會, 1970)

있다. 기왕 일을 서둘 바에는 생색낼 수 있는, 바탕되는 일을 서두는 게 옳다는 것이다.

〈한라산의 금덩어리라도 셀 놈 웃이민 못 센다〉(한라산이 금덩어리라도 셀 놈 없으면 못 센다)는 표현이 俗談과 民謠에 드러나는 것 역시 漢拏山은 女王峰처럼 夫아 있고, 日常 머리를 치켜들면 도민들이 어디서나 내다볼 수 있다는 데서 말미암는다. 또한 〈죄주산은 악산이여〉(濟州山은 惡山이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지난날의 地瘠民貧의 根源을 제주도의 自然이 지니는 精氣의 不毛에 돌리려는 發想인 것이다.

죄주산은　　악산이여
보리밥을　　밥이옝 먹엉
죄주 난 일이　　칭원ᄒᆞ다
(타작노래)

語釋 : 濟州山은　　惡山이네
보리밥을　　밥이라 먹어
제주 난 일이　　원통하다

西歸邑 西烘里에 〈지장세미〉란 샘이 있다. 水面은 언제나 잔잔하며 좀처럼 마르는 일 없는 샘으로 山北의 〈山地물〉과 늘 相應·提携하면서 두 우물이 한꺼번에 말라 버리는 일이 없다는 傳承이 있다. 〈지장세미〉는 한결같은 水面을 유지하는 우물이라는 점에서 큰 變幻과 起伏이 없는 生活의 平衡을 〈지장세미 물ᄀᆞ찌〉(지장샘 물같이)라 비유하며 俗談化되었는데, '맷돌·방아노래'에 가끔 등장한다. (拙著「濟州島 民謠研究(上)」謠175, 謠720, 謠721, 謠723)

제주도는 역시 風多의 섬이기 때문, 俗談과 民謠에 역시 바람이 가끔 나타난다. 〈ᄇᆞ름 불엉 절 갠 날 시멍, 하늘 울엉 비 갠 날 시랴〉(바람 불어 물결 잔 날 있으며, 하늘 울어 비 갠 날 있으랴)는 俗談임과 동시에 民謠다. (拙著 前揭書 謠185, 謠811)

Ⅱ. 人 事

人事에 관련된 俗談과 民謠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은 죽음을 題材하는 데 쏠렸다. 역시 죽음이란 民間들로서도 절실한 關心事여서 刈那의 人生을 〈불 담으레 온 인생〉(불씨 담으러 온 인생)으로 비유하는 俗談이 있으며, 역시 民謠에도 드러난다. 예전 성냥이 썩 貴했을 때는 民家의 솥아궁이마다 까그라기따위로 불씨를 이어 뒀다. 어쩌다가 껐을 때는 옆집에 〈좀팍〉따위 木器를 들고 얻으러 갔었는데, 잽싸게 갔다 돌아와야 할 것은 물론이다. "불씨 담으러 온 인생은/이 세상을 떠나가네"라는 내용의 輓歌가 보인다. (拙著 前揭書 謠1222) 適切하고도 異彩的

警喩인 것이다. '맷돌·방아노래'나 輓歌에 보면 〈멩이 짯른 무덤은 셔도 셜룽 죽은 무덤은 웃나〉(명이 짧은 무덤은 있어도 설어 죽은 무덤은 없다)하는 俗談이 끼어든 경우도 보이는가 하면, (拙著 前揭書 謠237, 謠238, 謠1227) "대문밖이 저승이라", 혹은 "저승길은 조반전길이라"는 俗談이 민요에 나타나기도 한다. (拙著 前揭書 謠231, 謠233, 謠269, 謠1220)

한편, "낭기라도 枯木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온다"는 俗談이 '맷돌·방아노래', '海女노래', '꿀베는 노래' 등에 마뜩하게 끼어듦으로써 嘆老하기도 한다. (拙著 前揭書 謠666, 謠667, 謠860, 謠1119)

表善面 加時里에 康堂長이란 大富豪가 있었다. 드넓은 田地와 百頭를 헤아리는 소도 가질 만큼의 大富豪였다는데, 너무 인색한 게 禍根이 되어 모멸당한 托鉢僧의 화풀이에 따라 先墓를 잘못 移葬하게 되고 갖은 災禍가 덮친다, 그 凶兆를 내용으로 한 俗談과 民謠가 보인다. (拙著 前揭書 謠783) 그 凶兆는 털을 뜯어 버린 닭이 고끼약하며 울고, 그슬린 돼지가 달음을 닫는다는 등 갖가지인데 〈톧은 독이 고끼약ᄒᆞ고 기시린 돗이 돌음을 돌나〉라고 표현된다.

〈부지런 부젠 하늘도 못 막나〉(부지런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이 민요 속에 溶解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큰 부젠 하늘엣 부제
족은 부젠 오곰엣 부제
오곰엣 톡 오곰엣 톡
(맷돌·방아노래)

語釋: 큰 부자는 하늘엣 부자
작은 부자는 오금엣 부자
오금엣 턱 오금엣 턱

大富豪는 天定의 것이요, 小富는 오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自彊不息의 열매로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具象的 表現이 實感 있게 드러났다.

이밖에 人事에 관계된 俗談으로서 民謠에 混入되는 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에는 標準語譯과 더불어 混入되는 民謠의 謠種을 밝히기로 한다.)

○ 돈 웃고 보민 적막강산, 돈 싯고 보민 금수강산 ('해녀노래', 돈 없고 보면 적막강산, 돈 있고 보면 금수강산)

○ 나 설룬 말 놈 들어 심상, 놈 설룬 말 나 들어 심상 ('맷돌·방아노래', 내 섧은 말 남 들어 심상, 남 섧은 말 내 들어 심상)

○ 미운 놈이랑 떡 ᄒᆞ나 더 주라 ('김매는 노래', 미운 놈이랑 떡 하나 더 주라)

○ 살아 생이벨은 생초목에 불 부뜬다. ('맷돌·방아노래', 살아 생이별은 生草木에 불 붙는다)

○ 둥글인 독새긴 빙애기 뒈곡, 손에 쥔 독새긴 썩엉 고린다 (雜謠, 굴린 달걀은 병아리 되고 손에 쥔 달걀은 썩어 구린다)

○ 둥글인 사름은 셀 배가 나곡, 모시는 사름은 중기가 뒌다 (雜謠, 굴린 사람은 쓸 바가 나고, 모시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 대로한질 놀레로 가라 ('맷돌·방아노래', 대로한길 노래로 가라)

Ⅲ. 家 庭

家庭을 題材로 한 民謠와 俗談의 交叉点은 小室에 쏠리고 있다. 이유는 역시 人間生活에 있어서 많은 말썽을 同伴하는 機緣일 수 있는 게 畜妾이겠기 때문이다.

오름에 돌광　　지세어멍은
둥글어댕기당도　　살을메 난다
놈의 첩광　　소낭긔 ᄇᆞ롭은
소린 나도　　살을메 웃다
버륵버륵　　살마꼿은
ᄒᆞ를 피영　　웃어나진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오름〉에 돌과　　**〈지세어멍〉은
굴러다니다가도　　살 도리 난다
남의 첩과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 도리 없다
번듯번듯　　반하꽃은
하루 피어　　없어나진다

* 岳·峯·漢拏山 둘레 및 島一圓에 걸쳐 불쑥불쑥 솟은 寄生火山 (側火山).

** 貞節을 잘 지키면서 집안을 착실히 다스리는 本妻.

本妻는 돌처럼 外虛內實한가 하면, 小室은 바람처럼 外實內虛하다는 好詞다. 돌의 哲理는 그대로 不敗의 意志이면서 島民들의 生活信念으로 굳어진 것이다[14].

여기 〈오름에 돌광 지세어멍은 둥글어댕기당도 살을메 난다〉 및 〈놈의 첩광 소낭긔 부름은 소린 나도 살을메 웃다〉는 표현은 각기 俗談이라 볼 수 있다.

〈늙은 놈이 젊은 첩 ᄒᆞ난 불 본 나비 놉드 듯ᄒᆞᆫ다〉(늙은 놈이 젊은 첩 하니 불 본 나비 나대 듯 한다)는 俗談과 民謠가 있으며, 〈양첩ᄒᆞᆫ 놈 동지섯돌에 핫옷 그럼서라〉 (양첩한 놈 동지섣달에 핫옷 그리고 있더라)는 俗談은 다음 民謠를 낳았다.

ᄒᆞᆫ ᄆᆞᅀᆞᆯ에 ᄉᆡ첩ᄒᆞᆫ 놈아
양에 닮앙 불 내영 앚나
양반은 ᄉᆡ첩을 ᄒᆞ난
멩지바지가 ᄉᆡ허리라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 한 마을에 세첩한 놈아
양하 닮아 불 내어 앉는다
양반은 세첩을 하니
명주바지가 세벌이더라

男性들로 봐서는 畜妾을 삼가야 함이 강조됨은 물론이지만, 女人으로서는 "留鄕座首 妾들지 말고 山馬牧子 本妻로 가라"는 實利的 俗談과 民謠가 있다. (拙著 前揭書 諺558, 諺559, 諺560)

지난날의 通念이 다 그렇지마는 자식은 보배라 觀念하는 俗談과 民謠가 보인다.

인간의 보벤 ᄌᆞ식이 보베
낭긔 보벤 ᄋᆞᆯ매가 보베
(해녀노래)

語釋 : 인간의 보밴 자식이 보배
나무의 보밴 열매가 보배

拙著 前揭書의 '謠 1006'역시 자식은 金銀보다 훨씬 珍重한 것임을 强調하고 있다. "八代獨子 외아들이라도 울음소리는 듣기 싫다"는 俗談이 民謠化한 게 보이며 (拙著 前揭書 諺640). 애

14) 拙稿: '濟州島民謠와 石多', 「韓國民俗學」 第3輯, 1970, p.36.

가 무럭무럭 자라남을 〈오뉴월 장마에 물쉐 크 듯〉(오뉴월 장마에 물외 크 듯)이라 直喩하는 俗談이 자장가에 끼어들기도 한다. (拙著 上揭書 諺1380)

〈시앗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俗談이 全國에 흩어졌지만, 제주에서는 〈살챗보리 거죽차 먹어도 씨왓이랑 상대를 말라〉(안 찧은 보리 거죽채 먹어도 시앗일랑 상대를 말라) 혹은 〈살챗 보리 거죽차 먹은멀 씨왓이사 ᄒᆞᆫ 집의 살랴〉(안 찧은 보리 거죽 채 먹은들 시앗이야 한 집에 살랴)는 俗談이 전한다. 後者의 俗談은 民謠 속에 포괄된다.

질이 웃엉　　ᄒᆞᆫ 질을 건곡
물이 웃엉　　ᄒᆞᆫ 물을 먹곡
살챗보릴　　거죽차 먹은멀
씨왓이사　　ᄒᆞᆫ 집의 살랴
(맷돌·방아노래)

語釋 : 길이 없어　　한 길을 걷고
물이 없어　　한 물을 먹고
안 찧은 보릴　　거죽채 먹은들
시앗이야　　한 집에 살랴

이 이외에 繼母·妻妾·同婿 等을 題材하는 俗談으로서 民謠와 交流되는 것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괄호 속에는 標準語譯과 더불어 混入되는 民謠의 謠種을 밝히기로 한다.)

○ ᄆᆞ랑좁ᄊᆞᆯ 늬 웃이 먹엉 놈의 어멍 말 웃이 살라 ('맷돌·방아노래', 자디잔 좁쌀 뉘없이 먹어 ᄂᆞ남의 어머니 말 없이 살라)

○ 조강지처 천년ᄉᆞ랑, 첩ᄉᆞ랑은 일년ᄉᆞ랑, 놈의 지집 ᄑᆞᆫ깨ᄉᆞ랑 ('맷돌·방아노래', 조강지처 천년사랑, 첩사랑은 일년사랑, 남의 계집 번개사랑)

○ 쇠동세라 ᄒᆞᆫ 집의 사난, 산 쉐 다리 빈다 ('맷돌·방아노래', 세동서가 한집에 사니 산 소 다리 뻰다)

Ⅳ, 시집살이

韓國 民謠의 精華는 '시집살이노래'다.[15] 제주도에서도 시집살이의 모든 어려움은 며느리와 媤族과의 관계에서 우러나는데 제주도적인 家族構造에 따라 韓本土에 비하면 그 苦楚는 덜한

15)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294.

편이다. 허지만 媤母·媤妹에 대한 不協和的 關係는 오이디프스·컴플렉스라 到處에 있는 어려움이니, 제주도에서라고 예외일 수 없다. 〈씨난 씨어멍〉(쓰니 시어머니)이라는 俗談과 民謠가 있는데 頭韻의 작용에 따른 재미 있는 비유다.

씨어 부난　　씨어멍이여
가시 돋안　　가시어멍
매우난　　메누리여
돌아 부난　　ᄃᆞ사리여
(語戱謠)

語釋 : 씨 놓으니　　시어머니네
가시 돋아　　*〈가시어멍〉
매우니　　며느리네
데려 놓으니　　**〈ᄃᆞ사리〉네

* 丈母.　　** 며슴애.

시어머니도 그렇지마는 시누이의 거드름은 類萬不同의 것이어서 나도 親庭에 가면 '잔에 부은 참기름'처럼 愛之重之할 對象임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이에 따른 俗談과 民謠가 드러나기도 한다.

씨집이엔　　오라랜 ᄒᆞ난
씨누이야　　씨가령 말라
나도 가민　　어멍이라라
잔에 비운　　춤지름이라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 시집이라고　　왔다고 하니
시누이야　　시거드름 말라
나도 가면　　어머니더라
잔에 부은　　참기름이더라

또한 "시어머니 죽으라고 축수했더니 보리방아 물 부어 놓고 생각 난다"는 속담이 전국에 흩어졌거니와, 이게 다음의 골계적인 민요를 낳는다.

씨어머님　　씨암탁 걸음
ᄆᆞ레 ᄀᆞᆯ 땐　　또 생각남져
(맷돌·방아노래)

語釋 : 시어머님　　씨암탉 걸음
맷돌 갈 땐　　또 생각난다.

여기저기 빚을 많이 져서 관계가 깊음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이란 표현이 있다. "고슴도치 외 따 지 듯", "고슴도치 외 짊어지 듯"도 같은 표현이다. 가고 싶지 않은 시집이지만 어린 아기가 있기 때문, 얽매어져서 어쩔 수도 없다는 민요가 보인다.

가젠 ᄒᆞ난　　가진 실퍼도
아니 가진　　몬ᄒᆞᆯ로고나
데추낭게　　연 걸리 듯이
어린 아기　　ᄉᆞ정이로구나
(맷돌·방아노래)

語釋 : 가려하니　　가긴 싫어도
아니 가진　　못하겠구나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이
어린 아기　　사정이로구나

V. 生 業

제주도의 生業은 제주도적 與件에 따라 多樣·特異하다. 특히 맷돌·방아작업이 지난날 중요한 婦女子들의 日常 家內作業이었는가 하면, 海女作業과 冠網作業이 濟州島的 特異生業으로 傳承된다.[16] '맷돌·방아노래'는 그 質과 量이 秀拔할 뿐더러 民間의 情意를 속속들이 表現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例謠만 하더라도 거의가 이에 쏠렸다. 여기에서는 作業樣相에 따른 것만 골라 보기로 하는데 우선 '맷돌·방아노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보인다.

16) 拙稿; '제주도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第8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pp.43-48. 拙稿; '海女노래와 海女' 「李崇寧博士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1977, pp.435-456. 拙著;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상수ᄆᆞ름　　부저리칩도
은 방엣귀　　은돕이라라
방에첫광　　베첫은 ᄀᆞ망
열놈이 사도　열다섯이 사도
비 잡은 이　　사공이라라　　(맷돌·방아노래)

여기에는 俗談 둘이 끼어들었다. 하나는 〈상수ᄆᆞ름 부저리ᄀᆞ찌〉요, 또 하나는 〈비 잡은 이 사공이라〉이다. 〈상수ᄆᆞ름〉이란 涯月面 鳳城里(於道里)地境의 地名인데 그곳에 〈부저리〉란 大富豪가 살았었다. 이 富豪는 집안이 넉넉했을 뿐더러 이웃에 施惠하기를 즐겼으므로, 이런 분을 두고 〈상수ᄆᆞ름 부저리ᄀᆞ찌〉란 俗談이 생겼는데, 이 민요에서는 다만 大富豪라는 뜻으로만 나타났다. 여기에 全國에 흩어져 있는 〈비 잡은 이 사공이라〉는 속담이 끼어들었다. 표준어로 對譯해보자.

〈상수ᄆᆞ름　　부저리〉집에도
은 절굿공이　　여덟이더라
방아*〈첫〉과　　뱃전은 같아
비 잡은 이　　사공이더라

* 〈천〉과 같은데, 곧 제주도 고유의 나무로 된 절구인 〈남방에〉의 확 옆으로 주욱 바라진 부분.

〈상수ᄆᆞ름 부저리〉라는 富豪의 집에 아무리 여덟분이 은 절굿공이를 들고 방아찧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방아를 찧는 일은 배를 저어 나가는 일과 같아서, 배의 키를 조정하는 분이 주장이듯, 방아 찧을 때도 비를 잡아 작업을 조정하는 이가 주장이 된다는 것이다. 萬事는 主張하는 분의 意圖에 따른다는 뜻, 다음 민요에 더욱 具体化된다.

요 방에에　　열 놈이 가도
비 잡은 이　　사공이라라
훈 베에　　열 놈이 가도
치 잡은 이　　사공이라라

語釋 : 요 방아에　　열 놈이 가도
비 잡은 이　　사공이더라

한 배에　　열놈이 가도
키 잡은 이　　사공이더라

방아 찧고 맷돌 가는 일이 至難하기야 하겠지만, 日常 되풀이되는 일이요, 제주도 여인들에겐 이보다 더욱 힘겨운 作業이 山積했었으므로 이 作業에 負擔을 덜 느꼈다. 그래서 〈방에 찧 듯 ᄆᆞ래 ᄀᆞᆯ 듯〉(방아 찧 듯 맷돌 갈 듯)이란 속담이 생겼고, 방아 찧 듯 맷돌 갈 듯하면 살림 못 살 사람이 있더냐는 뜻의 민요가 태어났다.

방에 징 듯　　ᄆᆞ레 ᄀᆞᆯ 듯ᄒᆞ민
세간 못 살　　사름이 셔냐
(맷돌·방아노래)

海女는 제주도의 名物이다. 生活을 위해 生命을 거는 그들의 生活意慾과 鬪志도 놀랍거니와 東北亞細亞一帶 出稼에 따른 숱한 逆境과 雄渾한 意志는 人間生活의 肅然함을 말해 주기도 한다.[17] 海女들은 제 손으로 櫓를 젓는다. 作業하러 나가면서 櫓를 젓고, 자그만 風船을 탄 채 거친 波濤를 헤치고 韓本土 各處로 出稼하면서 노를 젓는다. 櫓가 힘껏 저어지기를 바라면서 "늙은 쥐가 소금 먹 듯", "늙은 영감 장가 가 듯"이라 直喩하는데 이는 곧 俗談이다.

늙은 중이　　소곰 먹 듯
늙은 영감　　장개가 듯
이 네 젓엉　　ᄀᆞ듸 가게
(해녀노래)

봄에 出稼한 해녀들은 秋夕直前에 歸鄕한다. 歸鄕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의 노래 속에 '어정칠월 동동팔월'이라는 俗談이 끼어들기도 한다. (拙著 上揭書 諺948)

〈숭어 뛰난 복쟁이 뛴다〉(숭어 뛰니 복쟁이 뛴다), 〈새 울히 장개 가민 헌 울히 나도 한다〉(새 오리 장가 가니 헌 오리 나도 한다)는 俗談이 童謠에 끼어들기도 하고 (拙著 上揭書 謠1370) "그물이 삼천코라도 버리가 으뜸"이란 俗談이 '김매는노래' 속에 드러나기도 한다. (拙著 上揭書 謠1020) 비단 童謠나 '김매는노래' 속에 끼어들기는 했지만 그 題材는 漁業이다. 濟州的 産業構造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양태·망건·탕건 작업 등 冠網手工藝에 따른 노래 역시 제주도에서만이 傳承된다.[18] 凉太가

17) 拙稿; '濟州島海女의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pp.307.－324.
18) 拙著; 「濟州島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재빨리 떠지기를 바라는 데서 〈각단밧듸 불 부떠 가 듯〉(〈각단〉 밭에 불 붙어 가듯)이란 俗談이 '양태노래' 속에 끼어든다. 〈각단〉이란 지붕을 이는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이는 짧은 띠를 뜻한다. 〈관 관 새에 불 부뜨 듯〉(바싹 메마른 띠에 불 붙 듯)이란 제주도 속담이 있고, "가랑잎에 불 붙 듯"이란 속담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같은 部類다.

각단밧듸　　불 부떠 가 듯
요 양태야　　못아나지라
(양태노래)

Ⅵ. 衣 食

예전의 제주도는 地瘠民貧했었기 때문에 衣食住에 늘 시달려 왔다.

먹지 좋댄　　놈의 것 먹으난
돌픈 물에　　짐이로고나
낭은 지난　　골골이 썩어도
장넨 지난　　썩은 듸 웃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먹기 좋다고　　남의 것 먹으니
고달픈 말에　　짐이로구나
나무는 쓰러지니　　골골로 썩어도
*〈장네〉는 지니　　썩은 데 없다

* 주로 中山村에서 絶糧期에 貧寒農家가 富豪農家에서 곡식을 꾸었다가 한철 농사가 지난 다음 갚는 일. 보통 조나 보리를 주었다가 밭벼나 메밀 등으로 갚거나, 같은 곡식이면 이자조로 1割쯤을 덧붙여 갚는데 국가에서 貸與했던 還上과는 다름.

이 민요에서 〈돌픈 물에 짐〉, 혹은 〈낭은 지난 골골이 썩어도 장넨 지난 썩은 듸 웃다〉는 俗談인데, 다음 민요에서 역시 自立·自强하면서 한사코 依他하지 않으려는 意志가 强靭히 드러나고 있다.

나 것 웃언　　놈의 것 먹으난
돌픈 물에　　짐이로고나

신 것이랑　　신유에 먹곡
웃인 제랑　　도랭을 말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니
고달픈 말에　　짐이로구나
있는 것일랑　　있기에 먹고
없는 뗄랑　　달라고를 말라

〈산짓물이 술이라도 먹을 놈 웃이민 못 먹나〉(산짓물이 술이라도 먹을 놈 없으면 못 먹는다)는 俗談은 變轉되어 〈산짓물이 술이나 뒈민/가는 벗도 사귀쥬마는/술은 아니 물이로구나〉(拙著 上揭書 諺117)라고 表現된다. 또한 〈먹을라고 씨라쿳ᄒᆞ민 가지낭긔 모람이 욘다〉(먹으려고 쓰려고 하면 가지나무에 모람이 연다)는 俗談도 民謠 속에 번번이 끼어든다. (拙著 前揭書 諺548, 諺637, 諺1004)

〈시어노난 신 담베〉(있아 놓으니 신 담배)라는 頭韻을 교묘히 이용한 俗談도 民謠化하면서 사람들의 常情을 푹 찌르고 있다.

시어 노난　　신 담베라라
웃어 노난　　난 그리더라
(맷돌·방아노래)

語釋 : 있어 놓으니　　신 담배더라
없어 놓으니　　난 그리더라

衣生活은 食生活에 비하여 지난날엔 相扶·互惠가 힘들다는 게 世態인 듯, 〈미정 궤정 밥 줄 인 셔도, 미정 궤정 옷 줄 인 웃다〉(밉든 귀엽든 밥 줄 인 있어도 밉든 귀엽든 옷 줄 인 없다)는 俗談과 民謠도 보인다.

죽엉 가민　　썩어질 궤기
산 때 미영　　놈이나 궤라
미정 궤정　　밥 줄 인 셔도
미정 궤정　　옷 줄 인 웃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죽어 가면　　썩어질 고기
산 때 움직여　　남이나 피어라
밉든 귀엽든　　밥 줄 인 있어도
밉든 귀엽든　　옷 줄 인 없다

Ⅶ. 兩班·官吏

제주도민들은 지난날 兩班과 官吏들에게 二重三重 被壓되어 왔었으므로, 兩班·官吏를 素材한 俗談과 民謠도 보인다.[19] 〈걸랑 지경 양반의 걸 지라〉는 俗談이 있으니, 結婚을 하거나, 關係를 맺더라도 기왕이면 兩班과 어울리라는 것이다.

걸만 지어도　　양반의 걸은
질에 팽풍　　둘른 간ᄒᆞ다
걸만 지어도　　상놈의 걸은
소왕가시　　디딘 간ᄒᆞ다
(맷돌·방아노래)

語釋 : 관계만 맺어도　　양반과의 관계는
길에 병풍　　두른 듯하다
관계만 맺어도　　상놈과의 관계는
엉겅퀴가시　　디딘 듯하다

拙著「濟州島民謠硏究(上)」의 謠707과 謠709도 같은 發想의 노래다. 文武와 壽命을 교묘히 配合시켜 〈글을 흠으로 글백년 살랴, 활을 흠으로 활 백년 살랴〉는 俗談이 있는데, 이게 民謠 속에 끼어들기도 한다.

글을 흠으로　　글 백년 살랴
활을 흠으로　　활 백년 살랴
잘 살민　　단 백년 살곡
못 살민　　단 ᄉᆞ십 산다
(맷돌·방아노래)

19) 拙稿: '濟州島民謠에 비친 서울',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68, pp.119-131.

語釋 : 글을 한들　　글 백년 살랴
　　활을 한들　　활 백년 살랴
　　잘 살면　　단 백년 살고
　　못 살면　　단 사십 산다

〈중이 놀은 뒨 밋이나 두곡, 생이 놀은 뒨 짓이나 두곡, 군ᄌᆞ 놀은 뒨 ᄆᆞ뜻이 웃나〉(쥐 놀은 멘 〈밋〉이나 두고, 새 놀은 멘 깃이나 두고, 군자 놀은 멘 금이 없다)라는 俗談과 〈놈도 원 살곡 신 산다〉(남도 員 살고 臣 산다)는 俗談 역시 民謠 속에 끼어든다. (拙著 前揭書 謠720, 謠63, 謠64) 여기 〈밋〉이란 〈멧〉이라고도 하는데 고방이나 부엌, 솥어귀 등 쥐가 앉았던 자리에 파 올려 쌓인 흙따위를 가리킨다.

V

이상 拙著「濟州島民謠硏究(上)」를 중심으로 民謠와 俗談이 交流되는 實態를 그 交流의 形態나 題材에 따라 實例를 제시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俗談과 交流되는 民謠가 주로 어떤 謠種의 노래인가를 集計해서 살펴 보려 한다. 俗談과 交流되는 民謠를 總括하여 集計해 보니, 그 謠種別 統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맷돌·방아노래	90篇
○ 海女노래	11篇
○ 行喪노래	5篇
○ 김매는 노래	3篇
○ 雜謠	3篇
○ 자장가	2篇
○ 꼴베는 노래	1篇
○ 타작노래	1篇
○ 멸치 후리는 노래	1篇
○ 양태노래	1篇
○ 語戱謠	1篇
○ 童　謠	1篇

이 統計에서 보면 역시 '맷돌·방아노래'가 壓倒的이어서 무려 4分의 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맷돌·방아노래'가 제주도 민요의 王座格임을 드러내는 또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맷돌·방아노래'는 그 質과 量으로 보아 제주도 민요 가운데 썩 秀拔한 민요여서 제주도 민요의 固有·優秀性은 바로 이 '맷돌·방아노래'가 있기 때문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20] 이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强調해 오는 터이다. 俗談과의 交流가 빈번함은 그만큼 썩 가다듬어진 내용의 노래가 불리어진다는 말이 된다.

日常 會話生活 가운데 民衆의 共鳴을 얻고 公認貨幣처럼 民衆社會에 널리 通用되는 짜릿한 語句가 俗談으로 쓰이게 마련이며, 이처럼 平易明快하고 的確痛切한 俗談이 제주도 민요 가운데서도 '맷돌·방아노래'에 대부분 쏠린다는 사실은 復言하거니와 '맷돌·방아노래'의 秀逸性이 具体的으로 立證된다 할 것이다.

다음의 比重은 '海女노래'에 쏠린다. 제주도 민요에서는 '맷돌·방아노래' 다음의 優秀性을 '海女노래'가 간직하고 있다는 證據인 것이다.[21] 이 地球上에 海女가 있는 곳은 濟州島뿐이며, 濟州島 海女에 의해서만 '海女노래'는 傳承된다. 近者 '海女노래'를 民謠의 한 謠種으로 定立하자는 提議가 日本에서도 보이기는 하지만[22] 日本의 '海女노래'는 제주도에서처럼 本格的으로 불리어지지 않을 뿐더러 對比하여 論議될 수 없다.[23] '海女노래'가 特異하게 傳承되며 優秀性을 띠고 있으므로, 역시 俗談과의 交流도 꽤 이뤄진 것이라 본다. 其他는 '行喪노래'·'雜謠'·'자장가'·'語戲謠'와 童謠 等에서 俗談과 交接되는 民謠가 몇몇 드러날 뿐, 나머지는 모두 勞動謠에 쏠리고 있다. 제주도 민요에서 勞動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證據인 것이다.

Ⅵ

1. 이제까지 濟州島民謠와 俗談을 중심으로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實態를 살펴 보았다. 같은 口碑文學이기 때문에, 그 각 장르間의 交流는 자연스런 現象인 것인데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 가운데도 특히 民謠와 俗談과의 交流가 두드러진 데는 이 兩者의 類似性이 짙다는 점에 原因하는 것으로 본다.

2. 民謠와 俗談과의 類似性은 첫째 兩者 모두가 非專門的인 民衆들의 所産이라는 점, 둘째

20) 拙稿; '濟州島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第8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p.47. 拙著; 「濟州島民謠의 特色」, 濟州大學, 1964, p.6.

21) 拙稿; '海女와 海女노래', 「李崇寧博士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1977, pp.435-456.

22) 關山守彌; '民謠と海女の傳承', 「日本民俗學」, 第116號, 1978.5, 日本民俗學會, pp.24-34.

23) 拙稿; '海女노래와 海女' 「李崇寧博士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1977, p.436, 註3參照.

그 形態가 짧아서 簡潔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 셋째 民間의 生活相 및 民間智慧의 總和라는 점, 넷째 日常生活과 밀착된 可視的이요 具象的인 事象을 題材한다는 점, 다섯째 地域的 特異性을 띤다는 점 등으로 要約할 수 있는데, 地域的 特異性은 俗談에 비해 民謠의 경우가 한결 두드러지다는 점을 지적했다.

3. 濟州島 民謠와 俗談의 交流는 세 形態에 따라 나눠 볼 수 있음을 실례를 들면서 확인하였다. 그 세 形態란 첫째 俗談이 그대로 民謠 한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 둘째 俗談이 民謠의 一部分으로 끼어드는 경우, 셋째 俗談이 民謠 속에 溶解되면서 같은 뜻이나마 그 表現이 改變되어 나타나는 경우등이다.

4. 다음에는 俗談과 交流되는 濟州島 民謠의 題材別 分析을 試圖해 보았다. 그 결과는 自然 (29篇) · 人事 (28篇) · 家庭 (24篇) · 시집살이 (12篇) · 生業 (8篇) · 衣食 (10篇) · 兩班과 官吏 (9篇) 等이다. 이는 곧 民間의 日常生活과 直結된 事象들이면서 濟州島의 地理·歷史·社會的 與件이 具体的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짙음을 그 實例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5. 俗談과 交流되는 濟州島 民謠를 그 謠種別로 分析해 본 結果, '맷돌·방아노래'와 '海女노래'에 쏠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맷돌·방아노래'가 압도적이어서 交流되는 민요의 무려 3分의2에 이르고 있음은 濟州島 民謠 가운데 '맷돌·방아노래'가 質量으로 秀拔함을 立證하는 것이며, 다음의 비율이 '海女노래'임은 '海女노래'가 제주도에서만이 傳承되는 괜찮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濟州島 民謠의 特質의 하나가 勞動謠의 優勢에 있음과 아울러 俗談과의 交流 역시 勞動謠 爲主로 이루어짐을 確認하였다.

6. 口碑文學 相互間의 交流實態의 考究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民謠든 俗談이든 巫歌든 그 篇篇에 대한 本質的 硏究가 이룩될 뿐더러 口碑文學 각 장르에 대한 立体的인 분석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또한 이 作業을 통하여 口碑文學을 享有·傳承하는 民衆意識을 究明하는데 傍系的인 論據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口碑文學과 記錄文學間의 交流實態 究明까지 뻗쳐 나갈 때 文學의 發想根源을 構圖的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 Summary —

The Interaction of Folk Song and Other Oral Literature

— With Emphasis on Folk Songs and Proverbs of Jeju Island —

Kim Young-don

Oral literature is a literature banded down by word of mouth. It forms a strong factor of the cooperative work. At times, it makes an interchange among the literary works, within the same genre and even beyond the genre.

In this pap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terchange are analyzed. It is believed this study is greatly needed in explaining the transmission origin of oral literature and clarif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enjoying oral literature. The scope of the study is so wide that the analytic object is limited to the folk songs and proverbs of Jeju Do.

The conclusions are summed up here.

1) One of the remarkable interchanges of folk songs and oral literature is that of folk songs and proverbs. This may be because they are quite similiar to each other.

2) The folk song and the proverb are resemblant in many ways, i.e., ① both of them are products of the unprofessional people, ② they are succinct because of the short form, ③ they express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and the integration of their wisdom, ④ as the subject they deal with the visible and concrete things close to the daily life, ⑤ they have the regional uniqueness. The regional peculiarity of the folk song is more remarkable than that of the proverb.

3) The interchange of folk songs and proverbs of Jeju Do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① the proverb becomes the version of folk song itself, ② the proverb is inserted into the part of the folk song, ③ the change of expression in the proverb occurs due to its melting in the folk song.

4) The present study makes an analysis of the theme for the folk songs which are interchanged with proverbs. There are many kinds of themes based on nature (29 versions.), personal affairs (28 versions.), home (24 versions.), married life (12 versions.), vocation (8 versions.), clothes and food (10 versions.), the nobility and officials (9 versions.). These subject matters are concerned with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They are apt to express the geographical,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5) As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of Jeju Do folk songs which are interchanged with proverbs, there are many songs sung when people are grinding grains and woman divers' song. An overwhelming number of the songs sung when grinding grains mounts up to two thirds of Jeju Do folk songs. which are interchanged with proverbs. This means that the songs sung when grinding grains are excellent both in number and quality.

The reason why another kinds of many songs are woman divers' song, for the song is handed down only in Jeju Do. The superiority of work song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o folk songs. The interchange with proverbs, as a rule, is made with putting first importance in work songs.

6) A study on an interchange of oral literature shall be done in the future, Only in that case the essential study of folk songs and proverbs can be done. After the study it is possible to analyze each genre of oral literature, Through this study the collateral basis of an argument can be consolidated in order to clarify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o enjoy and hand down oral literature. Furthermore, when we examine closely the interchanging conditions between oral literature and written literature, we can make out the original source of literature.